

하악골과 장골의 조직형태계측 비교

유소정*, 정문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

본 연구에서는 골밀도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없는 40구의 사체에서 양측 또는 편측의 68개의 하악골과, 23개의 장골을 채취하여 하악골의 횡단면과 장골에서 조직형태계측을 시행하였다. 실험대상의 평균 나이는 60.3세였고, 여자 15명, 남자 25명이었다. 하악골에서는 시편을 제작한 곳과 동일한 부위에서 단층촬영을 하였다. 조직형태계측 방법을 통해 하악과 장골의 상관관계를 비교하여 전신골의 골밀도가 하악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하였고, 60세 이상 남녀의 골밀도 차이를 비교하여 성별에 따른 골밀도 차이를 관찰했다. 조직형태계측방법과 단층촬영방법의 상관관계를 비교하여, 단층촬영의 신뢰성에 대해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피질골두께, 다공도와 소주골의 소주골부피, 평균소주골두께, 평균소주골밀도, 평균소주골분리의 값을 비교한 결과 하악골과 장골은 상관관계가 없었다.
2. 60세 이상 남녀의 하악 골밀도 비교에서 협측, 설측 피질골의 다공도와 치조골의 평균소주골밀도를 제외한 모든 지수에서 남자의 골밀도가 여자보다 유의성있게 높았다.
3. 하악에서 피질골의 조직형태계측방법과 단층촬영간에는 통계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소주골에서는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하악골과 장골의 골밀도는 통계학적 상관관계가 없었으므로, 장골의 생검을 통한 하악 골밀도의 추정은 의미가 없으며, 아울러 임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비침투적 하악 골밀도측정방법의 개발과 정상치에 대한 정보의 축적이 필요하다.